

LOCAL

2025년 4월 25일 금요일

온라인 쇼핑 '곡성물' 2년만에 누적 15억 매출

함평, 공정거래 질서 확립 앞장 전통시장서 물가안정 캠페인

함평군은 소상공인연합회와 최근 함평 천지전통시장 일원에서 물가안정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캠페인은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 불공정행위 근절(바가지요금 등), 착한가격업소 이용 독려, 합평사랑상품권 및 공공배달앱 '떡깨비' 가맹점 가입 홍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광객과 주민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축제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군은 물가모니터링 요원을 상시 운영해 지역 물가 동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상의 군수는 "함평을 찾는 방문객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신뢰받는 지역 상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근 기자 6263739@

나주야생화연구회 전시 성료 '봄빛 자연을 담다' 180점 선봬

나주시 야생화연구회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나주역에서 '2025년 제5회 나주야생화연구회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봄빛 자연을 담다. 야생화와 마주하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시민들에게 야생화의 아름다움과 자생식물의 가치를 전달하고 자연 친화적 삶에 대한 공감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전시회에는 총 180여점에 달하는 야생화 작품이 선보였다. 이들 작품은 나주시 야생화연구회 회원이 오랜 시간 가꾸고 연구해 온 결과물로 단순한 식물 전시를 넘어 창의력과 자연에 대한 애정이 담겼다.

특히 하루 평균 4000여명이 오가는 나주역 이동통로를 전시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시민들과 방문객에게 일상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했다.

윤병태 시장은 "이번 전시회는 시민이 자연을 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자생식물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이라며 "앞으로도 나주시가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삶을 지향하며 지역 생태문화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나주=조원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120여농가·업체 입점...560여농특산물 판매 지역경제 선도 온라인 플랫폼 자리매김 평가

곡성군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곡성물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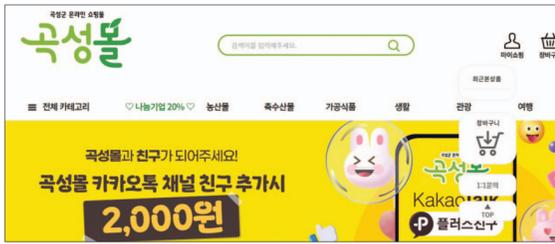
24일 곡성군에 따르면 곡성물 누적 매출액이 지난 14일 기준 15억원을 돌파했다.

지난 2023년 9월 오픈한 이후 지난해 10억원 매출을 달성했고,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온 결과다.

곡성물은 곡성군 내 120여 농가와 업체

가 참여해 쌀, 한우, 토란 가공식품 등 560여종의 고품질 농특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신선하고 품질이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며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매출 15억원 달성에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과 이벤트가 큰 역할을 했다. 지난 1월 설연휴 기획전부터 정월대보름 맞이 이벤트, 삼겹살데이 기획전, 곡성물 입점 업체 자체할인 기획전 등 시기별 맞춤형



프로모션이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었다.

특히 곡성 대표 농산물인 유기농 쌀 백세미와 한우, 흑돼지가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았으며, 이 외에도 김부각, 사과, 멜론, 민물장어 등이 인기 상품

성장미추제 특별전, 곡성 멜론 기획전 등 시기에 따른 맞춤형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곡성물을 통해 소비자는 품질 좋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고, 입점 업체는 매출 증가로 인해 지역 아동을 위한 기부에 참여하고 있다. 24일에는 착한 기부에 동참한 기부업체 기획전을 진행해 지역 상생 발전에 기여했다.

곡성물 담당자는 "입점 업체와 곡성물을 사랑하는 소비자들의 도움으로 짧은 기간 동안 매출 15억원을 달성하게 돼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품질 좋은 상품과 다채로운 이벤트를 통해 더욱 사랑받는 쇼핑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진도군은 제철을 맞은 '봄 꽃게'를 25일부터 27일까지 진도 서망항 일원에서 제9회 진도 꽃게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물 반, 꽃게 반'...제철 맞은 진도 봄 꽃게 풍성

3월 이후 약 200t 위판...어선당 300kg 잡아 올려 27일까지 서망항서 '꽃게 축제'...경매·난타공연 등

진도 꽃게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진도 해역에서 '봄 꽃게잡이'가 한창이다.

24일 진도군에 따르면 제철을 맞은 봄 꽃게를 잡기 위해 매일 약 20~30척의 꽃게잡이 어선이 출어해 조도면 외 병·내병도, 관매도 일원에서 척당 250~300kg의 꽃게를 잡아 올리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서망항에서 진도군수 협을 통해 위판된 꽃게는 약 200t으로, 위판액은 약 50억원이다.

진도군 조도면 해역은 냉수대가 형성

돼 플랑크톤 등 먹이가 풍부하고 모래층이 얇게 형성되면서 꽃게 서식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됐다.

특히 연중 적조가 발생하지 않는 청정 해역인 진도군은 지난 2004년부터 21년 동안 바다의 모래 채취 금지와 함께 매년 꽃게를 지속적으로 방류해 왔다.

진도에서는 꽃게를 통발로 잡아 올려 다른 지역 꽃게보다 상품성이 좋아 구매를 위한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진도군수협이 경매 위판

가격은 kg당 3만~4만원이다.

진도군과 진도군수협은 25일부터 27일까지 진도 서망항 일원에서 제9회 진도 꽃게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꽃게 깜짝 경매, 트로트 가요제, 난타 공연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준비돼 있다.

또 꽃게 낚시 체험, 제기차기·투호 등 전통문화체험, 세대공감 오락실, 풍선아트 등 부대행사도 많이 있어 즐거움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수 군수는 "청정 해역에서 갓 잡은 싱싱한 꽃게도 드시고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에도 참석해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장성 북하면, 26~27일 산나물축제 개최

장성호관광지·단전리 일원...풍물놀이·가수 공연 등

장성군 북하면이 산나물 산지로 유명한 지역의 역사성과 개성을 살린 마을축제제를 선보인다.

24일 군에 따르면 제1회 북쪽하늘아래 산나물축제가 26~27일 이틀간 장성호관광지와 북하면 단전리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의 주무대는 장성호관광지(북하면 쌍우리 273)다. 첫날에는 장성국악협회의 풍물놀이와 초대가수 공연, 아코디언·통기타·색소폰 연주, 노래자랑, 건강댄스 등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1970년대 장성호 조성과 함께 수몰된 북상면 항우들을 위한 '제12회 옛 북상면 민만남의 날' 등 뜻깊은 행사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튿날인 27일에도 초대가수의 무대와 레크리에이션, 각설이 공연, 노래자랑 등

흥겨운 순서들이 이어진다.

점심시간을 앞두고선 북하면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741인본 비빔밥 퍼포먼스'도 펼쳐진다. '741'은 북하면 백암산의 최정상인 상왕봉 높이(741m)에서 착안했다.

산나물 체험행사는 26일 하루 동안 북하면 단전리(527번지)에서 열린다.

우선 장성호관광지 주무대에서 체험을 신청한 뒤 3000원, 5000원 두 종류로 마련된 봉투를 구입해 체험지로 이동하면 된다.

김한중 군수는 "지역민이 정성을 다해 마련한 산나물축제가 북하면 관광 활성화와 산나물 산지의 명성을 제각인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성=이항범 기자 hnb6699@gwangnam.co.kr

구례, 제65회 전남체전 대회기 인수

구례군은 최근 장성군 흥길동체육관에서 열린 제64회 전남도 체육대회 폐막식에서 차기 개최지로 대회기를 인수하고 2026년 제65회 전남체전 성공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고 24일 밝혔다.

폐막식에서 김순호 군수는 이날 김한중 장성군수로부터 대회기를 전달받아 구례군이 차기 대회 개최지임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또한 구례군청 공무원들과 구례군 체육회기 홍보단을 구성해 다양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홍보 영상을 상영하는 등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김순호 군수는 "제64회 전남체전이 장성군 관계자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 덕분에 도민 모두가 스포츠로 하나 되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었다"며 "제65회 전남체전은 구례의 청정 자연과 우수한 스포츠 인프라를 바탕으로 선수들의 열정과 투혼을 더욱 빛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전남체전 조직위원회 구성, 경기장 시설 확충 및 정비, 숙박 및 교통 대책 마련 등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민간의 준비를 하고 있다.

구례=전창제 기자 dong-eah@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가짜환자로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